

마태복음 27장 45-50절 말씀

①

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
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

46 제구시쯤에
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
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
이는 곧

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

②

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
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

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
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

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
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

③

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
영혼이 떠나시니라